



2012년 3/4분기 가계 평균소비성향 감소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3/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4만 2,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.3% 증가(실질 증가율은 4.6%) 하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6만 7,000원으로 1.0% 증가(실질증가율은 0.7% 감소)하였음.

-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¹⁾이 전년동기대비 7.8%²⁾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소비지출액은 246만 7,000원으로 1.0% 증가(실질증가율은 0.7% 감소)하였는데 이는 교육, 보건 분야 등의 지출이 정부정책 시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임.
 - 교육부문의 지출이 6.1% 감소한 것은 보육료 지원, 등록금 인하³⁾등 때문임.
 - 보건부문의 지출이 3.5% 감소한 것은 약가 인하, 포괄수가제 등의 제도 시행 때문임.
- 비소비지출액은 79만 2,000원으로 6.1%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용호조로 경상조세(12.5%), 연금(8.2%), 사회보험료(7.2%)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
■ 평균소비성향은 73.6%로 전년동기대비 1.2%p 하락하였으며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3.9%p 상승한 26.4%로 나타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높아져 향후 소비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소비 둔화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

- 2012년 1/4분기 이후 가계 흑자율⁴⁾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저축능력은 증대되고 있으나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⁵⁾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소비 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(2012년 3/4분기 가계동향, 통계청, 기획재정부 11/16)

1)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.0%임.
 2) 전년동기대비 취업자는 50만 6,000명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 구성비가 1.1%p 상승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음.
 3) 5세(유치원/어린이집)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(소득 하위 70%→ 전계층, 2012년 1월)
 2012년 등록금 인상률(전년비, %): (국공립대)-5.5 (사립대)-3.9
 4) 2012년 1/4분기 23.0% → 2/4분기 25.9% → 3/4분기 26.4%
 5) 2012년 1/4분기 2.2% → 2/4분기 1.1% → 3/4분기 -0.7%